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새달초 지급

등록자 8979명 검증 마무리
이달 최종 대상자 확정 계획

군산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직불금을 오는 12월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달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8,979명의 이행점검 등 사후검증을 마치고 이달까지 지

금대상자 등록정보 수정을 마무리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년에서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

위로 12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2ha, 2~6ha, 6ha 초과)과 농지별로 역진적 기준단가(100만 원/ha ~ 205만 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 원 이상인 자,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약 안전사용,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등 17

개 이행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감액해 지급한다고 군산시는 밝히고 있다.

이학천 군산시 농업축산과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이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강경창기자 · kang@

전북언론신문

알아두면 좋아요

군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내달 지급

군산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직불금을 오는 12월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8979명(소농 1,773, 면적 7,206)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검증을 완료했으며, 11월까지 지급 대상자 등록정보 수정을 마무리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

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2ha, 2~6ha, 6ha 초과) 및 농지별로 역진적 기준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약 안전사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17개 이행사항 미준수 시 감액해 지급된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최근 코

로나19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이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첫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중·소농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으며, 군산시는 지난 12월 2020년 공익직불사업 대상자 9035명에게 231억 9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전북제일신문

군산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월 초 지급 예정

군산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오는 12월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10월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8,979명(소농 1,773, 면적 7,206)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검증을 완료했으며, 11월까지 지급 대상자 등록정보 수정을 마무리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2ha, 2~6ha, 6ha 초과) 및 농지별로 역진적 기준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타인의 농

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약 안전사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17개 이행사항 미준수 시 감액해 지급된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이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허정찬 기자

2021년 11월 09일 화요일 015면 오피니언

2021년 11월 09일 화요일 007면 종합

기본형 공익직불금 내달 초 지급

군산시, 등록자 대상 사후검증

이달까지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군산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직불금을 오는 12월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8,979명(소농 1,773, 면적 7,206)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검증을 완료했으며, 11월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정보 수정을 마무리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

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2ha, 2~6ha, 6ha초과) 및 농지별로 역진적 기준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약 안전사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17개 이행사항 미준수 시 감액해 지급된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코로나19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이 중소 규모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첫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중·소 농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시행됐으며, 군산시는 지난 12월 2020년 공익직불사업 대상자 9,035명에게 231억 9,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수현 기자

전민일보

2021년 11월 09일 화요일 008면 지역

군산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월 초 지급

소농 1773명, 면적 7206명

군산시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직불금을 오는 12월 초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8,979명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검증을 완료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쌀 수급 불균형 해소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중·소농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1,773명)과 면

적직불금(7,206명)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별·농지별로 역진적 기준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학천 농업축산과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익직불금이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익직불사업 대상자 9,035명에게 231억 9,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내달 초 지급 예정

군산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직불금을 오는 12월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8,979명(소농 1,773, 면적 7,206)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검증을 완료했으며, 11월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정보 수정을 마무리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2ha, 2~6ha, 6ha초과) 및 농지별로 역진적 기준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월 초 지급 예정

군산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직불금을 오는 12월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8,979명(소농 1,773, 면적 7,206)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검증을 완료했으며, 11월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정보 수정을 마무리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및 농지별로 역진적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군산=고병만기자

새만금일보

군산, 2021 기본형 공익지불금 12월 초 지급 예정

군산시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직불금을 오는 12월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8,979명(소농 1,773, 면적 7,206)에 대한 이행

점검 등 사후검증을 완료했으며 11월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정보 수정을 마무리 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년~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및 농지별로 역진적 기준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순철일 기자

기본형 공익직불금 12월초 지급

군산시, 소농직불금 120만원·면적직불금 기준단가 적용

군산시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하 공익직불제) 직불금을 오는 12월 초 지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10월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자 8,979명(소농 1,773, 면적 7,206)에 대한 이행점검 등 사후검증을 완료했으며, 11월까지 지급대상자 등록정보 수정을 마무리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와 신규 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자격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한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단위로 120만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

작면적 구간별(2ha, 2~6ha, 6ha초과) 및 농지별로 역진적 기준단가(100만원/ha~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신청 전년도 기준 3,700만원 이상인 자,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등 비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약 안전사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17개 이행사항 미준수 시 감액해 지급된다.

한편, 2020년 첫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중·소농에 대한 소득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군산시는 지난 12월 2020년 공익직불 사업 대상자 9,035명에게 231억9,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박상만 기자